

시조 목단강 2006

목단강시조선족군중예술관 편찬
북 방 시 조 사 랑 회



시조 목단강 2006

목단강시조선족군중예술관 편찬
북 방 시 조 사 랑 회



조선민중출판사

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时调牡丹江. 2006/牡丹江市朝鲜族群众艺术馆编. 牡丹江: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6. 6

ISBN 7-5389-1329-7

I. 时... II. 牡... III. 诗歌—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27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6)第 073068 号

书 名/ 时调牡丹江 2006
编 者/ 牡丹江市朝鲜族群众艺术馆
北 方 时 调 爱 好 会
责任编辑/ 金声宇
责任校对/ 朴莲淑
封面设计/ 咸成镐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印 刷/ 牡丹江书刊印刷厂
开 本/ 850mm×1168mm 1/32
印 张/ 5
字 数/ 120 千字
版 次/ 2006 年 6 月第 1 版
印 次/ 2006 年 6 月第 1 次印刷
印 数/ 1—600 册
书 号/ ISBN 7-5389-1329-7/I·445
定 价/ 10.00 元

(如印装质量有问题,请与本社发行部联系调换)

머리말

전통문화에 대한 재조명과 더불어 우리 민족문화의 멋이
며 맛이 하는것도 그전엔 학자들의 책상머리에서만 논의되
던것이 인제는 보다 광범위하게 대중적인 면으로 파급되고있
는것 같다. 민요콩쿨, 탈춤출연, 사물놀이... 등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열리는것을 자주 보게 된다. 대중매체의 눈부신 발전
도 발전이려니와 개혁개방의 혜택으로 그만큼 우리의 경제,문
화 생활이 풍요로와져 마음의 여유를 갖고 수용하는것으로서
문학면에서도 최근 들어 중국 조선족 문단의 대중참여 시조창
작열도 그런 맥락으로 살펴보면 될것 같다.

사실 우리 문화 고유의 멋과 맛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만
이 갖고있는 정감의 분출인 신들림, 신바람을 꼭 짚고넘어갈것
이다. 바로 이 신들림, 신바람의 기저에는 언제든지 시로 될수
있는 운률 있는 언어가 용용수마냥 먼 옛날부터 흘러왔고 그
것을 수백년동안 담아오고 퍼내가고 전해주고 할수 있는 그릇
이 바로 시조요 그 운률형식이 3·4조, 4·4조이다.

우리 민족에게 익히 알려져있는 옛시조들 이를테면 양사
언의 시조 《태산이 높다 하되》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시조문
학의 쌍벽인 송강 정철, 고산 윤선도 같은 이들의 시조라든가
그 외에도 수많은 애국시조, 충절시조, 사랑시조, 교훈시조, 해
학시조, 영물시조... 등은 우리 겨레 회로애락의 정감이 고스란
이 담겨져 살아 생생히 숨쉬고있는 열의 빛이요 옥의 소리이
다. 초, 중, 종장 삼행시 형식에다 함축된 언어로 그렇듯 귀중
한 정신문화 재보를 담아 후대에 전한 선조들이 우러러보이고



자랑스럽기만하다.

이런 전통문화를 이어받아 꽃피워가는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신의 정신생활을 여유있게 풍요롭게 가꾸고 알차게 누려가는 보람이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행운이랄가 가물에 단비라 할가 한국 《시조 월드》의 박구하사장님이 목단강에 오셔서 북방문인들에게 시조창작의 불씨를 지피고 시조 한마당을 열수 있는 기회를 물심량면으로 마련해주셨다. 여기에 목단강을 중심으로 일부 문인, 교원들이 시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가세하여 마침내 《북방시조사랑회》를 내오게 되었고 이곳 문화생활에 시조의 풍치가 가미하게 되었다.

이 책은 바로 《북방시조사랑회》 성원들과 흑룡강성 부분적 중,소학교 학생들이 최근에 창작한 시조작품들을 한권으로 묶은것이다. 칠순이 넘은 할아버지로부터 소학교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이 시조집의 저자 군체는 실로 각양각색이며 차원 또한 각계각층이다. 하지만 시조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시조를 지으려는 그 열정만은 한결같아 대단히 가상한것으로서 독자 여러분들은 이 점을 감안하여 회심의 미소 느슨히 예쁘게 보아주시기 바란다.

시조란 《시절가조》문자 그대로 그 시대의 유행을 따른 노래이다. 글로벌시대, 개혁개방시대에 간결하고도 효율성 높은 이 시형식이 시대상을 반영하고 시대정신을 구가하며 본체의 자양분을 키우고 대중문화생활을 꽃피워가는데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6년 6월 6일

목단강시조선족군중예술관 관장 주봉남

《북방시조사랑회》 회장 김성우



《북방시조사랑회》의 첫 시집발간을 축하하면서

시조의 숲과 불씨

개혁개방으로 날따라 새라새롭게 변모, 발전하고있는 저 중국 동북벌에서 들려오는 시조의 합성소리를 서울 한구석에서 듣고 저는 얼마나 가슴 벅찼는지 모릅니다.

맨발로 떠난 이런 저런 곡절과 사연들이 긴 세월 잊지 않고 지켜온 모국어로 민족시인 시조를 지어 책 한권에 묶어낸다는것은 그 의의가 실로 하나의 나라를 여는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불과 1년반전, 어느 추운 겨울날 불초한 제가 시조의 씨앗을 품고 홀로 목단강을 찾아간것은 어쩌보면 싹을 지고 불에 뛰여든 격이였습니다. 시조의 불모지에서 생업에도 바쁜 여러분들이 한민족의 얼과 한이 배인 시조를 그처럼 열렬히 환영할줄은 몰랐던것입니다.

당시 연길에서 와있던 최문섭시인과 함께 소학교를 찾아가 어린이시조 지도와 백일장을 통해 시조보급의 가능성을 확인한것도 놀라웠는데 급기야 김성우시인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뜻을 내여 《북방시조사랑회》까지 결의한것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그것이 목단강을 중심으로 할빈, 상지, 동녕, 해림, 녕안, 대경 등 북방 곳곳의 문인들이 전폭적으로 참여하여 1년만에 결성대회를 열고 그 반년만에 다시 이런 앤솔로지를 내는것은 참으로 대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조그만 불씨였다면 여러분은 싹이였습니다. 불이였습니다. 그 불이 이제 타오르



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감격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은 한자리에 머무는 불이 아니라 산을 타고 들을 건너 북방 곳곳에 료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갈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것이 민족 문학 시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처럼 첨단적인 사회에서 7 백년전의 《고리타분한 문학유산》인 시조가 무슨 소용이 있고 힘이 있겠는가 하겠지만 시조는 우리 문화의식의 원류이자 민족어의 적자이기에 우리 민족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수밖에 없는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그렇다고 시조가 시대에 뒤진것인데도 우리 것이니까 살리고 지키자는것은 아닙니다. 시조는 그 특유의 가락과 틀이 첨단시대에 딱 들어맞는 더욱 유용한 문학 장르로서 특히 현대에 와서 대중성, 통속성, 시대성, 철리성, 취미성을 더한층 갖추고있기에 오늘날 문화적정체성을 보존하고 교류하는 수단으로서도 시조가 가장 유용합니다. 왜냐 하면 시조는 우리 민족이라면 특별히 배우거나 고심하지 않아도 누구나 잠깐이면 짓고 부를수가 있고 부르면 감정이 통하기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시조라는 이 문학형식을 세계에 보급하자는 목표가 공허하지 않다는 증좌를 보는듯 하여 기쁩니다. 시조는 언젠가는 그 우수성때문에 세계인들이 참여하는 세계문학으로 발전될 날이 오리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습니다.

이번 시집발간이 기폭제가 되어 북방지역에 시조의 북이 울리고 시조의 기발이 사방천지 기운차게 휘날리면 여러분의 민족사회는 더욱 발전할것입니다.

2006 년 6 월 4 일
《북방시조사랑회》 명예회장 박구하
서울에서



자 례

- 1 · 머리말 / 주봉남 김성우
3 · 시조의 삶과 불씨 / 박구하

- 1 · 경 로(외 15 수) / 한영석
7 · 글공부(외 15 수) / 위정호
13 · 정령감(외 30 수) / 리중수
24 · 동락주(외 29 수) / 정경남
35 · 까마귀(외 22 수) / 윤하섭
43 · 겨 울(외 6 수) / 김동욱
46 · 생 활(외 18 수) / 최화길
52 · 무 제(외 7 수) / 박홍남
55 · 사람과 돈(외 7 수) / 리창현
58 · 해바라기(외 1 수) / 최련옥
59 · ???(외 7 수) / 현순복
62 · 큰나무(외 2 수) / 조정숙
63 · 리 별 1(외 8 수) / 해 봉
66 · 고향집(외 15 수) / 리승룡
72 · 아빠의 간장(외 17 수) / 김운천
78 · 봄 물(외 8 수) / 강효삼
82 · 인생노래(외 9 수) / 황훈호



· 차 례 ·

- 86 · 개 미(외 8 수) / 김 파
92 · 금 전(외 4 수) / 주영애
94 · 진달래(외 18 수) / 설병화
99 · 류옥현(외 4 수) / 류옥현
101 · 목단강 푸른 물에(외 4 수) / 김성우
103 · 행 복 / 김성옥
104 · 봄(외 3 수) / 리영옥
106 · 별(외 1 수) / 김예문
107 · 편히 가소서(외 2 수) / 한경애
108 · 향해의 꿈(외 1 수) / 심분선
110 · 인 생(외 5 수) / 심금화

♣ 동녕현조선족중학교 학생 시조

- 113 · 봄 / 윤정일
113 · 아름다운 수탉 / 엄금철
113 · 엄마 손 / 박철우
114 · 무거운 책가방 / 김 화
114 · 박 쥐 / 리미림
114 · 새 싹 / 김 연
115 · 초 불 / 우추홍
115 · 엄마의 사랑을 못받은 소녀 / 리춘단
115 · 송아지 / 최미란
116 · 부모의 사랑 / 신 철
116 · 기 회 / 정 표
116 · 노 력 / 권설림
117 · 신 심 / 지홍철
117 · 갈 망 / 장 적



- 117 · 금 전 / 박광춘
118 · 리 상 / 박영준
118 · 현시대의 주인 / 김 빈
118 · 고진감래 / 민성균
119 · 부모님 / 최명려
119 · 환경보호 / 서홍금
119 · 지구를 보호합시다 / 고미향
120 · 꽃향기 / 박성미
120 · 목 숨 / 리수연
120 · 사랑의 손길 / 김해령
121 · 우리 가정 / 김은화
121 · 초 불 / 김 령
121 · 공 부 / 최미나
122 · 잔 디 / 리향단
122 · 지구의 소원 / 김향단
122 · 우 정 / 박춘희
123 · 바 람 / 리인자
123 · 못 산 / 김봉림
123 · 봄 / 박용진
124 · 우 정 / 박홍건
124 · 거부기와 토끼 / 박 건
124 · 손가락 / 채선희
125 · 눈 / 윤 미
125 · 공 기 / 김미선
125 · 자 유 / 김 정
126 · 두만강 / 림설매
126 · 할머니의 머리카락 / 김미령



126 · 쓰라린 가슴 / 문숙자

127 · 아 침 / 박연화

127 · 언제면 / 김혜복

127 · 벼이삭 / 리향령

128 · 기 회 / 한향매

128 · 은 혜 / 리옥실

128 · 진달래 / 박청미

♣ 목단강시조선족소학교 학생 시조

130 · 락 업 / 조 승

130 · 가지와 나무잎 / 리향춘

130 · 꽃엄마와 꿀벌아들 / 리 미

131 · 겨울강 / 리방화

131 · 하늘나라 / 김 령

132 · 시 계 / 김미령

133 · 나 무 / 김 령

133 · 아기별과 금붕어 / 황혜려

134 · 가 을 / 김효진

134 · 동화나라 / 손 연

134 · 함박눈 / 전수련

♣ 할빈시 동력구조선족소학교 학생 시조

136 · 구 름 / 로길령

136 · 뭇 별 / 박연동

137 · 청소공아지미 / 조미나

137 · 돼 지 / 구주영

138 · 바 람 / 송 설



- 138 · 나팔꽃 / 강성순
139 · 아기별과 나 / 리금홍
139 · 바 람 / 조형원

♣ 할빈시 도리구조선족중심소학교 학생 시조

- 141 · 별 빛 / 신송단
141 · 별 / 한림홍
141 · 눈요정 / 김 은
142 · 엄 마 / 양원빈
142 · 나와 언니 / 신송단
143 · 공주님 / 김몽옥

♣ 해림시조선족실험소학교 학생 시조

- 145 · 구 름 / 류종옥
145 · 아기인형 / 안인화
145 · 북두칠성 / 김성래
146 · 오성붉은기 / 최령란
146 · 별 / 리향연
146 · 구름떼 / 김련란

- 147 · 시조의 생활화를 위한 뜻있는 첫걸음 / 한 춘



정 로(외 15 수)

한영석

그네도 날이 가면 고령에 이를텐데
이팔이 청춘이라 뽑낸단 웬 말이고
나라의 상감어른도 늙은이께 절한다.

교 양

손주놈 귀엽다고 꿀단지 안겨주고
염라왕 후손이라 천득봉 입힌다만
웅석에 키운 자식은 깨진 독이 되니라.

시 간

고기철 놓친 어부 그물 탓 하지 말고
밭갈이 놓친 농부 쟁기 탓 하지 말라
시간은 흐르는 물 같나니 한번 가면 못온다.



외로움

무정한 이내 님은 흐르는 물과 같아
떠나니 그뿐이라 소식도 없사오니
애 뜰는 홀아비신세 언제까지 갈내고.

인 격

돈벌이 하자 하니 면양의 신세 되여
사장은 나를 보고 시팔놈 욕한다만
닭알도 굴러가다가 모난 때가 있니라.

1 분

한알의 씨앗을 귀중히 여기듯이
1분의 배움시절 소중히 아낄것이
차시간 1분 놓치면 온 하루를 버린다.



자 만

찬바람 이겼노라 백일홍 자랑 말아
선달의 찬서리에 발가숭이 되려오니
한설의 저 매화꽃을 찬미함이 어찌리.

시내물

바위골 시내물이 세차다 자랑말아
모래밭 민둥산은 너만을 기다리니
감뒀고 빨리 가는것 보람인가 하노라.

사 랑

해 뜨면 나팔꽃이 소담한 웃음 짓듯
해 가면 해바라기 다소곳 따르듯이
해님은 부모님 사랑 사랑 따라 가노라.



단 련

사나이 무쇠팔뚝 장하다 자랑 말아
천층석 기암절벽 눈비에 부서지니
쉬잖고 단련하는것 인간세상 보낼세.

자 세

창턱의 월계화야 곱다고 뽐내질 마
말없이 동구밖을 지켜선 접시꽃은
절세의 거인답다고 절찬함이 잦더라.

임 무

방학을 하던 그날 선생님 하신 말씀
오늘도 머리속에 기억은 생생한데
온 하루 장난질이니 숙제공부 어찌리.



생 일

오늘은 생일이라 마음은 즐거운데
엄마는 생일옷에 온 정신을 팔렸으니
맛있는 생일케익을 언제 가야 사오나.

자 랑

우리 집 감등이는 참말로 귀여워요
학교에 갔다오면 반갑다 꼬리쳐요
하지만 강아지는 모르리 오늘도 백점 맞은걸.

손주놈

우리 집 손주놈은 총명이 과인하여
두터운 교과서를 몽땅 다 외우지만
식장안 바나나만은 하루종일 몰라요.

